도구는 문제에 맞는가

관심사 심층 독해 - 2026년 10월 22일자 피드 · 2026년 10월 23일 아침

> 어제 19개 피드 중 접속이 된 16개 피드의 새 글 13편을 전문 독해하고, 그중 8편을 골라 5개 주제로 분석했습니다. Leiter Reports와 Scott Aaronson은 일시적 요청 제한(429), EerdWord는 봇 차단 화면이 떠서 오늘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제의 글들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손에 쥔 도구가 지금의 문제에 맞는가. 정부의 경기 대응 도구는 수요 충격용인데 요즘의 충격은 공급에서 옵니다. 학술지의 동료 심사는 독립성이 생명인데 심사하는 사람이 제품과 이해관계로 엮여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신문 연재 만화라는 낡은 형식은 알고리즘 시대에 어떤 유통 도구로 살아남는가. 그리고 오래된 영성 실천은 원래의 논리를 잃은 채 옮겨지면 무엇이 되는가.

1. 경기 대책의 도구가 시대와 어긋날 때 - 공급 충격의 시대

이 글이 왜 중요한가부터 말해야겠습니다. 정부가 불황에 쓰는 표준 도구 - 금리 인하와 재정 확장 - 는 '수요 충격'에 맞춰진 처방입니다. 기업과 가계의 지출이 줄어 일자리가 사라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늘려 메우는 방식입니다. 이 처방이 안전했던 것은 수요 충격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이 '공급'에서 오면 -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는 능력 자체가 깨지면 - 실업과 물가 상승이 함께 오므로, 같은 처방이 고통을 덜어 주는 대신 물가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Conversable Economist가 소개한 논문(Peter Orszag 등 4인, 「The New Supply-Side Era: The O-Ring Meets Geopolitics」, 2026년 9월, LSE 행사 자료와 Lazard 게재로 실재 확인)은 지난 6년간 세계 경제를 때린 충격 여섯 번 - 팬데믹, 인공지능, 우크라이나 전쟁, 관세 충격,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중동 전쟁 - 이 전부 공급 쪽이었다고 정리합니다.

논문의 핵심 비유는 '오링(O-ring) 이론'입니다. 1986년 챌린저 우주왕복선은 고무 패킹 하나가 추위에 굳으면서 폭발했습니다. 복잡한 체계의 성능은 나머지가 멀쩡해도 가장 약한 부품 하나가 좌우한다는 것이고, 경제학자 Michael Kremer가 이를 발전 이론으로 옮겼습니다. 저자들은 세계화가 만든 긴 공급망 곳곳에 오링이 박혀 있다고 봅니다. 부품 하나, 항구 하나, 해저 케이블 하나, 세계 희토류 정제의 대부분을 쥔 중국, 최첨단 칩의 대만 같은 물리적 병목이 그것입니다. 공급 충격은 배송 지연 → 원자재 부족 → 이윤 압박 → 가격 전가의 파도로 천천히 번지고 늦게 풀리며, 요즘처럼 겹쳐서 올 때는 '운'이 아니라 '새로운 상시 조건'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들의 진단입니다. 이 빈도가 정말 구조적 변화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처방전이 충격의 종류를 가려야 한다는 요점은 그대로 설득력이 있습니다. 충격을 재는 자가도 다시 그려야 하는 시대라는 것이 이 보고서가 어제 다룬 통화정책 모형 논쟁(10/21)과 맞물리는 지점입니다.

2. 창립 편집자의 제품을 싣는 학술지 - 엑소좀 조사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광고 문구를 만났을 때 그 연구가 어떤 조건에서 심사됐는지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Retraction Watch의 조사 기사는 성형외과 의사 Rod Rohrich와 그가 2013년 창립한 학술지 PRS Global Open을 다룹니다. 엑소좀은 세포가 분비하는 작은 소포체로, 미용·탈모·상처 치료에 과대 포장돼 온 영역입니다 - Retraction Watch 데이터베이스 기준 관련 논문 181편이 철회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Rohrich는 Mayo Clinic에서 분사한 회사 Rion의 자문(유급 이해관계)이면서, 자신이 창립한 저널에 Rion 제품 관련 리뷰와 임상시험을 실었고 그 리뷰는 저널의 2025년 '최우수 연구 논문상'을 받았습니다(저널 측은 수상이 열람·인용 지표 기준이라고 설명).

후속 임상시험(모발 세럼, 참가자 39명)의 설계는 전문가 비판을 받았습니다. 위약(가짜 약)을 받은 사람이 39명 중 8명뿐으로, 표준 관행인 1:1에 가까운 배정과 크게 다릅니다. 생물통계학자 Frank Harrell Jr.는 "최소 검정력·최소 정밀도 배정"이라는 "심각한 설계 오류"와 "임시적인, 오도하는 분석"을 지적했고, 실제로 위약군이 모낭 수와 모발 질에서 평균적으로 약간 더 좋아졌는데도 통계적 유의성은 시험군에만 나타났습니다. Rohrich는 이 시험에서 Rion과의 관계를 기재하지 않았다가 "실수"라며 정정하겠다고 했고, 배정 비율은 "초기 효능·안전성 평가를 위한 의도적 선택"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저널이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한 또 다른 엑소좀 창상 연구는 저자들이 곧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 제품이 인체 줄기세포 유래가 아니라 배양 식물세포였기 때문입니다(철회 공지 확인). Rohrich는 "정당한 과학적 비판을 환영하며, 낙관은 증거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틀 전 다룬 GEB 사태(편집 공동체가 떠나며 저널이 무너진 경우)와 정반대의 그림입니다. 저널의 신뢰를 떠받치는 것이 심사자의 독립성이라는 같은 교훈의 두 얼굴입니다.

3. '영원히 연재된다는 것' - The Poet Quarterly 서평

이틀 전 이 보고서가 전한 Todd Webb 인터뷰(알고리즘이 더는 보여 주지 않게 된 일일 연재를 24쪽 우편 구독 만화책으로 옮긴 만화가)의 후속입니다. The Comics Journal이 그 구독물 The Poet Quarterly의 서평을 실었습니다. 왜 읽을 만한가 하면, '신문 연재만화'라는 형식이 왜 특별한 조건을 요구하는지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은 시인, 비둘기, 벤치 셋뿐입니다. 시인은 늘 거창한 의미를 찾아 헤매고, 비둘기가 현실로 끌어내리고, 벤치는 묵묵히 지켜봅니다. 서평은 이 구도를 Peanuts의 Lucy와 Charlie Brown, 더 거슬러 Nancy까지 이어지는 계보에 놓습니다. 의미를 찾는 자와 그를 흔들어 깨우는 자의 반복 - 이 단순한 장치가 "무한히 연재 가능한" 구조라는 것이고, 신문 만화의 금본위가 바로 그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서평은 분기물의 물성 자체도 평가합니다. 24쪽 소책자, King-Cat Comics의 수제 감성, 구독자에게만 오는 배포. "더 복잡해진 현재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라는 표현이 이 형식 선택의 의미를 정확히 짚습니다. 이틀 전 인터뷰에서 Webb가 직접 밝힌 경제 조건 - 소수 구독으로 자립 가능, 첫해 비용 충당 완료 - 과 함께 읽으면, 형식의 낭만이 아니라 유통의 설계라는 점이 분명해집니다(서평 전문을 읽었고, 원작 만화책 실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4. 참사가 캠퍼스에 남기는 것 - 대학 총격의 장기 효과

Marginal Revolution이 소개한 구직 시장 논문(저자 María Medellín-Esguerra, Brown 대학 박사과정, 학교 후보자 페이지로 실재 확인)은 묻습니다. 대학 총격의 비용은 당일의 희생으로 끝나는가, 아니면 그 후 몇 년의 선택을 바꾸는가. 방법은 '적층 이중차분법(stacked difference-in-differences)'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대학의 학생들을 사건 전후 기수로 나누고, 비슷하지만 사건이 없었던 대학의 같은 기수와 비교해, 사건 '이후에만' 나타난 차이를 사건의 효과로 추정하는 설계입니다. 1990~2025년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결과는 두 갈래입니다. 졸업까지 걸리는 시간에는 감지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재학 중이던 학생은 졸업 후 추가 학위 과정으로 진학할 확률이 4.2% 낮았고 - 여기서 4.2%는 비율의 상대 변화입니다 - 진학한 학생들 사이에서는 보건 계열을 택한 비중이 1.3%포인트(상대적으로 8.8%) 높았습니다. 더 주목할 것은 사건 이후에 입학한 기수들에게도 보건 계열 쏠림이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둘을 구분합니다. 사건 당시 재학생의 변화는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사건 후 입학생의 변화는 '선별' - 보건 분야 경험이 있는 지원자가 그 대학을 더 택하게 된 결과 - 로 읽습니다. 즉 참사는 목격한 세대가 떠난 뒤에도 제도와 문화에 흔적을 남깁니다. 추정은 저자의 식별 가정(비교 대학이 사건의 충격을 받지 않았다는 등)에 달려 있으며, 원논문 전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비용의 회계 기간을 언제까지로 잡아야 하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1번 항목의 공급 충격처럼 재난의 파장이 오래 이어지는 시대를 읽는 또 하나의 각도입니다.

5. 실천이 논리를 잃을 때 - 금식이 '자기계발'이 되는 과정

Experimental Theology의 '이식 충격' 연재 8부입니다(이 연재는 개신교가 회복하려는 영성 실천들이 원래 자란 토양의 전제를 잃을 때 생기는 부작용을 다룹니다). 이번 대비는 금식·고해·사순절 같은 '자기 부인'의 실천 대 치료적·긍정적 영성입니다. 저자의 진단: 이 실천들은 애초에 자아를 길들이는 몸의 훈련으로 설계됐습니다 - 배고픔 자체가 실천의 일부인 금식처럼. 그런데 저교회 개신교의 목회 언어가 '용서받고 사랑받는다는 확신' 중심으로 기울면서 - 사회학자 Christian Smith가 '도덕주의적 치료적 이신론'이라 부른 경향 - 자발적 불편을 선택하는 실천은 설명을 요구받게 됐습니다. 그 결과 사순절은 회개의 계절에서 '더 의도적인 습관을 만드는 계절'로 바뀌고, 수도원 전통의 예수 기도("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에서는 "죄인"이 빠집니다. 실천은 남았지만 그 실천이 답하던 물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틀 전 7부(은혜 대 노력의 문제)와 같은 '이식 충격'의 다른 얼굴이며, 저자의 신학적 해석이지 교파 전체의 조사는 아닙니다. 형식을 계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 3번 항목의 만화 형식과 나란히 놓으면 보이는 - 를 생각하게 하는 연재입니다.

짧게 덧붙입니다. Cafe Hayek은 연령대 유비로 관세 논리를 시험했습니다. 35~64세는 순저축층이고 청년·노년은 그들과 '무역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이유로 관세를 매기는 논리가 맞다면 중년의 판매에도 관세를 매겨야 합니다 - 아무도 그러자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요점입니다. 같은 피

드는 John Puri의 지적(보호주의와 비간섭주의를 함께 드는 것의 모순: 세계 질서는 못 바꾸면서 세계 경제 배치는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Casey Mulligan의 분석(주 정부의 병원 제공세가 연방 매칭을 끌어오는 회계 장치를 통해 민간 고용보험료를 1.5~1.7% 올렸다는 그의 연구·HHS 추정)도 링크했습니다. Tyler Cowen은 AI 규제의 '시간 차원'을 다뤘습니다 - 언젠가 과잉규제가 온다면 오늘의 부족규제는 그에 대한 헤지일 수 있다는 그의 논지입니다.

독해의 범위를 밝힙니다. 오늘은 19개 피드 중 16개만 확인했습니다. Leiter Reports와 Scott Aaronson은 서버가 요청을 일시 제한(429)했고, EerdWord는 봇 차단 화면을 돌려줘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 차단을 우회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확인은 읽힌 13편의 피드 전문이며, 외부 링크 중 추가로 확인한 것은 Orszag 등 논문의 LSE·Lazard 게재 페이지와 Brown 대학 구직 후보자 페이지뿐입니다. 엑소좀 조사의 사실관계는 Retraction Watch의 취재 기사이고, PubPeer 댓글과 철회 데이터베이스 원기록은 별도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대학 총격 연구의 원논문 전문은 읽지 않았습니다. Marginal Revolution은 피드 본문 기준의 조건부 출처입니다.

반드시 읽을 링크

1. Retraction Watch, 엑소좀 저널 조사 - https://retractionwatch.com/2026/10/21/journal-founded-by-plastic-surgeon-touts-studies-of-products-hes-tied-to-including-one-that-has-been-retracted/
2. Conversable Economist, 「A Supply-Shock Era?」 - https://conversableeconomist.com/2026/10/21/a-supply-shock-era/
3. The Comics Journal, The Poet Quarterly 서평 - https://www.tcj.com/reviews/the-poet-quarterly/
4. Experimental Theology, 이식 충격 8부 - https://experimentaltheology.blogspot.com/2026/10/transplant-shock-and-spiritual_01621960812.html